

시정발전 협력체계 '강화'

익산시 · 시의회, 간담회 개최... 시정운영 방향 · 주요 현안 논의

익산시는 시의회와 민선 8기 시정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시는 5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9대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됨에 따라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시는 시의회와 접체된 지역 상권 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정부지원사업, 민선 8기 중점사업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추

경예산 편성 시기 등을 논의하고 앞으로 도로 소통과 협력을 위해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가질 것을 약속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정현을 시장은 "민선 6기와 7기의 많은 성과는 시의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그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4대 익산 행복 비전(국제철도도시, 녹색정원도시, 역사문화도시, 바이오산업도시)을 실현하는데 시의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종오 시의회 의장은 "익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로서 힘과 지혜를 모아 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영유아 기정을 위한 프리미엄 부모교육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프리미엄 부모교육 큰 '호응'

익산시, 감정코칭 전문가 · 부모교육... 최성애 박사 초청

익산시는 영유아 기정을 위한 프리미엄 부모교육을 개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5일 대한민국 대표 감정코칭 전문가이자 부모교육의 최고 권위자인 최성애 박사를 초청해 '감정코칭을 통한 우리가족 행복일기'라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아이의 애착, 안전감, 공감 등 심리·정신건강의 토대를 구축하는 영유아시기의 중요성과 가족이 건강하게 소통하는 방법에 대한 강연을 진행해 많은 부모들의 공감을 얻었다.

또한 아이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위한 정서적 투자로서 영유아기에 부모와의 행복한 소통의 중요성을 통해 영유아의 정서발달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센터는 ZOOM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 많은 부모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없이 원하는 방식의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을 수강한 한 참여자는 "좋은 강사님의 강연을 직접 듣고, 소통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센터 관계자는 "매년 교육이 진행되는데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이 많고 호응이 높은 교육이었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육아 고민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하는 익산시민의 특화된 프리미엄 부모교육을 기획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역전의 명수 주역들 한 곳에 모인다

50주년 기념행사... 레전드들 한 곳에 모여 시민들과 함께 다채로운 행사 예정

'역전의 명수 군산'의 주역들이 군산시 월명아우터에 모인다.

군산시는 대역전극 우승을 달성한 1972년 황금사자기 야구대회 50주년을 맞아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친 군산시민들의 화합과 재도약을 위한 '역전의 명수 군산, 50주년 기념행사'를 오는 16일부터 17일까지 개최한다.

특히 이 자리에는 대역전극 우승 당시 군산상고의 레전드들이 참석해 기념행사를 더욱 빛낼 예정이다.

먼저 16일에는 레전드 팬사인회, 야구발전세미나, 공식행사가 진행된다. 레전드 팬사인회는 역전우승의 주역인 김병연, 김준환, 정효영, 김일권, 양종수, 조안연, 송상복, 김우근, 고병석 등 9명의 레전드가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할 예정이다. 야구발전세미나는 야구발전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군산체력인증센터 세미나실에서 진행된다.

세미나와 팬사인회 후 오후 7시부터는 지역공연팀의 사전 공연을 시작으로 50주년 기념행사 영상시청, 축하, 기념사, 내빈·레전드 퍼포먼스, 가수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으로 공식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16일과 17일 야외 부대행사장에서는 1972년 황금사자기 야구대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사진영상전과 군산체력인증센터의 체력측정 및 건강상담존, 프리마켓, 버스킹 시민참여공연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장 운영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군산=김판근 기자

익산시, 행복얼라이언스와 '행복두끼 프로젝트' 협약

익산시가 관내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시는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 대표 SK달링크, 사회적협동조합 청소년 자립학교와 함께 '행복두끼 프로젝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5일 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정현을 시장, 행복얼라이언스 사무국(행복나래·주) 임은미 실장, SK달링크 김문겸 임원, 청소년 자립학교 안윤숙 이사장이 참석했다.

'행복두끼 프로젝트'는 시각장애 결

식 우려 아동이 하루에 최소 두끼는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 멤버사 기업, 일반시민이 함께 협력해 국내 아동의 결식 제로를 목표로 추진하는 활동이다.

이 협약에 따라 약 6개월간 50명의 아동에게 총 6,600식의 도시락이 지원된다.

시는 결식 우려가 있는 관내 아동을 대상으로 추천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해당 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아동 급식 지원사업과 연결할 예정이다.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SK달링크,

미래셋생명, 메이트플러스)는 아동 50명에 대한 급식 공급을 위해 사업비와 기부 물품 마련 및 지원 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사업홍보에 주력한다.

청소년 자립학교는 운영 중인 청년 식당을 통해 지원 대상자에게 도시락을 지원하고 식단관리 및 모니터링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민·관이 협력해 결식아동문제 해결을 추진하게 되어 더욱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우리 시 아동들이 더 든든한 식사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영유아 부모대상 안전사고 교육 실시

군산시가 지난 2일과 5일, 월명동 근대교육관에서 영유아 부모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영유아 부모대상 안전사고 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가정에서 약 60%가량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67.9%가 3세 이하 영유아에게서 발생한다.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영유아 부모들이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

이날 영유아 부모들은 열상, 화상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처하는 법과 심폐소생술, 이물질 삼킴 등 위급한 상황 시 필요한 대응법을 실습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교육에 참석한 부모들은 "이물질 삼



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당황해하느라 대처를 잘 하지 못했는데, 이번 실습을 통해 응급대응 능력이 생겨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말했다.

안창호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응급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처법 등이 부모님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코로나 관련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익산시는 시민들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심리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우울·불안으로부터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서비스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정신건강 평가 서비스 링크가 포함된 심리지원 상담 안내 문자 서비스가 발송되며 평가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오감만족키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불안을 호소하는 시민, 재난종사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1 마음도움 프로그램', '찾아가는 행복이동상담소'를 운영해 정신건강검진과 상담 진행 후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농업용 드론 비행총 방제 나서

익산시는 농업용 드론을 이용해 병해충 방제에 나선다.

시는 농업용 방제 드론에 대한 이해와 안전한 드론 방제 기술향상을 위해 지역 농업인 20명 대상으로 5~6일 드론 방제 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드론 2종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농업인 대상으로 오산 들녘에서 비행 실습 위주로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농업인은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터득한 전문가의 방제 노하우를 단시간에 배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드론 방제는 영농철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할 뿐 아니라 영농시간 단축과 비용을 줄여 농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며 "앞으로 드론 활용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9년부터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 자격증 취득 교육을 추진해 현재까지 113명의 농업인이 자격증을 취득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